

7 국립대학 시스템

박 영준(2017년에 작성한 아이디어)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한국의 교육 전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학원 교육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학생들을 취재한 기사, 입시에 성공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겪는 무기력함 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지난 20년간 개선책을 내어 놓았지만, 상황은 더욱 나쁜 방향으로 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4차 혁명에 적합한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 현장의 전문가 들조차도 문제 해결을 포기한 듯 보인다.

문제의 어려움은 대학 입시에서 나머지 인생이 결정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믿음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또한 교육당국은 문제의 원인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입시정책을 바꿈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입시정책 변화만으로, 과외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충분한 준비와 모의 실험이 부족한 정책 시행이 문제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위기는 기회이며,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가는 교육열과 IT 인프라, 교육전문가가 있다. 새로운 정부를 앞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7개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국립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학사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국립대학 시스템이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할 자격과 의향이 있는 대학만 자율적으로 시스템에 속하도록 한다.

이 대학 시스템은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 시스템에 합격한 학생들의 캠퍼스 지정은 임의(random selection) 방식에 따른다. 가급적 전공 선택은 3학년에서 하도록 한다. 그러나 자세한 전공 선택 방법은 전공별 특성, 사회요구 등을 감안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과과정 운영은 교과과정 운영, 평가는 국가 평가위원회(미국의 ABET에 대응)에서 관리한다.

정부는 최고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지원한다. 평가는 “강의 평가”, “졸업생 평가” 등으로 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한다. 기숙사 시설, 교육 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교수 요원을 늘이고, 지방 근무인 경우 특별 지원한다. 이 시스템에 속한 대학에 합격은 비교적 쉽다. 매년 약 20000-30000명 입학생을 받음으로써 대학전 교육에서 보이는 입시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대학의 교육 질은 세계 수준으로 보장된다. 대학 입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입시열에 기인한 사교육을 줄이는 것 이외에 많은 장점이 있다. 인재의 맹목적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학생으로 하여금 타 지방생활을 체험하도록 한다. 공동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개방화, 자원 공동 이용 시스템 구축 학점 교환 제도, 도서관 공동 이용, 상호 방문 교수제도 확충 등으로 대학 문화 개방을 이룩할 수 있다.

성공을 위해서 이 시스템에 속하는 대학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최고의 학사과정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캠퍼스 내, 캠퍼스 간을 평가하고, 획기적으로 차등 지원한다. 평가질이 확인된 7 캠퍼스 학사과정 출신을 국가 공무원 채용등에서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다. 서울대학이 이 멤버에 속하면 좋으나, 꼭 그럴 필요는 없으며, 서울대학교 학사과정과 7 캠퍼스 학사과정이 경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3년 정도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한다. 멤버 대학이 되기를 원하는 대학에게는 3년간 강의 평가, 졸업생 평가를 행하여, 일정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 준비 기간 동안 강의록 준비, 교수 충원 ,최고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다. 대학 사정에 따라서 반드시 대학 전체가 멤버가 될 필요가 없으며, 단과대학별 가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공과대학만이 공동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

평가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특정 국립대학들이 정부 지원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제안하니 깊은 검토를 바란다.